SKC, LIPB 100만셀 추가 양산!

천안공장, 2005년 매출 1200억원 목표 ... 일본 제치고 급성장 기대

SKC(대표 최동일)가 차세대 2차전지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LIPB(Lithium Ion Polymer Battery) 양산라인을 준공했다.

SKC는 2002년 4월 천안공장에 월 25만셀의 생산라인을 설치한 후 하반기부터 추가증설을 시작해 2003년 9월25일에는 월 100만셀 규모의 양산라인을 준공하고 월 125만셀 규모의 리튬폴리머 전지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

SKC는 이번 리튬폴리머전지 양산을 계기로 본격적인 2차전지 사업을 시작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해 2005년에는 리튬폴리머 전지 부문에서만 한해 1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SKC는 이미 2001년 7월부터 월 200만셀 규모의 리튬계 2차전지 반제품인 전극 생산라인을 가동해 국내외 기업에 공급에 왔으며, 국내외 이동통신기기 제조기업들과 품질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일부 기업들로부터 용량과 성능면에서 일본기업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7월에는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차세대 리튬폴리머 전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군용 2차전지 개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어 프로젝트 완료 이후 미군 조달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차전지는 원재료로 리튬화합물을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와 폴리머를 사용하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가 대표적인데, 리튬이온폴리머전지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가볍고 안전성이 높으며 외관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 휴대용 IT기기의 경량화, 박형화, 고용량화 추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2년까지 약 3500억원에 불과했던 리튬폴리머전지 시장은 통신기기의 Mobility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폴리머전지의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새로운 사용 분야가 확대됨으로써 2005년 약 1조원대 이상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9>